호남석유화학 주식 사면 폐돈!

하나증권, 석유화학 호황 계속 ... 매수에 목표주가 9만원 제시

하나증권은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는 점과 석유화학업종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 등이 긍정적 요인이라고 1월31일 평가했다.

박정배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호남석유화학과 롯데대산유화의 2004년 총 EBITDA가 9890억원이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 호남석유화학의 시가총액은 EBITDA 1조원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자본가치의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석유화학의 주가에 경기하락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으며 주력상품 중 하나인 EG (Ethylene Glycol) 제조마진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은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매수> 투자의견과 9만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박정배 연구위원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단행되더라도 중국수출용 수요 감소보다는 내수용 수요증가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02/01>